

여수박람회 준비 어떻게 하나

43만㎡ 부지에 전시시설 13개동 짓는다

지원시설 18만㎡ 의료·치안·상업시설 경도·국동항 2곳 지원구역 새로 지정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가 오는 7월 박람회장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녹색성장에 기반한 시설물 준비와 차별화된 콘텐트 개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명실공히 전 세계 녹색경주(Green Race)를 주도할 '해양+녹색 박람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각 전시관별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내년에는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 형 유람선이 운항이 시작돼 박람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장 조성=총 43만3천㎡의 박람회장 부지는 전시장 25만㎡와 전시지원시설 18만3천㎡로 구성된다.

박람회장 전시시설은 ▲주제관 ▲부제관 ▲한국관 ▲지자체관 ▲국가관 ▲국제기구·NGO관 ▲기업관 등 총 7개 관 13동이 들어선다. 11만8천241㎡ 부지 위에 건축 전체면적만 12만4천400㎡ 규모다. 9만6천㎡ 부지에는 다목적 공연장과 수변광장 등 각종 이벤트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18만3천㎡의 전시지원 시설 부지에는 응급의료센터·치안센터·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지원·관리시설과 휴게시설 및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직위는 박람회장 부지조성을 7월부터 착수하고 8월에는 기공식을 할 계획이다.

전시관은 현상공모를 통해 오는 2012년 2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2곳 새로 지정=정부는 12일 '여수 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여수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경도 해양관

광단지역과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등 2곳을 지정했다.

여수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된 경도 해양관 광단지는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부지 215만3천956㎡로, 전남개발공사가 사업비 4천33억원(공사채 1천800억원·민자 2천233억원)을 투입해 빌라, 호텔, 콘도, 골프장 등을 건설하게 된다.



12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4차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선 2012년 여수박람회 개최 전까지 빌라 100실과 골프장, 호텔 및 온천, 상업시설,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여수시 봉산동 일원 6만7천288㎡ 부지에는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사업시행자인 다도 오션시티(주)가 2천866억원의 자본을 투입해 지상 45층짜리 관광 및 가족호텔과 655개 객실의 휴양콘도(4개 동) 시설을 짓게 된다.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도=해남과 진도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했던 거북선 유람선이 여수 앞바다에도 등장하게 된다.

박준영 전남남도지사는 12일 여수시에서 개최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에서 "박람회를 홍보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거북선형 유람선'을 2010년부터 여수에서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서 "여수는 거북선을 최초로 만들었던 '선소'와 조선 수군의 중심인 전라도수영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거북선 유람선을 건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비와 도비 44억원을 들여 거북선 유람선을 제작해 내년 관광 성수기 이전인 3월께 일만에 선보이고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각종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놀고 먹는 직원들 사표 받아라”

박광태시장 구조조정 시사 배경 관심

2015 하계 U대회 해외 유치활동을 위해 12일 출국한 박광태 광주시장이 작심한 듯 나태한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2015 하계 U대회 유치를 위해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을 고려해 부시장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성과를 내달라"고 언급한 뒤 "쓰소리를 해야겠다"며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박 시장은 "내가 정보에 밝은 사람인데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있다"며 "시민이 놀고먹는 사람을 원치 않으니 사표를 쓰라고 해라"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국정감사는 왜 가만히 있느냐. 호통을 치고 안 되겠으면 내가 사표를 받겠다"며 "다른 시·도가 감원할 때 우리는 버텼는데 죽어

라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종일 빈둥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U대회 유치를 위해 계속 외국 출장을 다니는 상황에서 이날도 출국을 앞두고 다소 느슨해진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박 시장의 발언이 구조조정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내년 5·18 30주년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가름 상수도 대책, 여류문화 영어교실 개설, 광산업·전산산업·로봇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 관련 업무, 예산 조기집행 등을 확실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5·18유공자 가족에 위로 서한문

박준영 전남지사 550여 가구에 보내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2일 5·18민중추진위원회 29주년을 앞두고 도내에 거주하는 550여 가구의 5월 유공자 가족에게 위로 서한문을 발송했다.



박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인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신 5월 영령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5월 가족이 자긍심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정신 계승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이자 세계 인류에게 인권과 자유를 확산시키는 숭고한 이념이었다"고 평

가한 뒤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8개 시·군 73곳에 설치된 5·18 관련 유적지와 안내 표지관, 표지석 등에 대한 정비·관리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유적지 실태 조사를 벌여 관리부실로 방치되거나 없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정비사업을 즉각 하고 유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도 사적지 관리지침을 준용해 관리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한 총리 “여수박람회에 녹색성장 비전 담을 것”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녹색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시설물과 콘텐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 비전이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여수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는 2012년에는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전 세계 녹색경주(Green Race)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물론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여수엑스포가 녹색성장으로 재도약을 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든든한 토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간 균형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섞여 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여수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신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박람회를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박람회장의 적기 조성 및 차별화된 전시콘텐트 발굴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박람회'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박람회 개최 D-3년을 계기로 수시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도려해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경남 하동군청과 삼진강, 구례군청, 순천송사 등을 방문한 뒤 상경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제)광주테크노파크공고 제 2009-20호

2009년도 “자동차 부품 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공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마케팅 지원사업계획 (① 신규마케팅 창출지원, ② 신제품 기획역량 강화지원, ③ 국내외 마케팅 활동지원) 등을 자동차 부품제조 및 관련기업 등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목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7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지원사업계획

가. 신규마케팅 창출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업
시장 및 마케팅환경 종합 분석/조사지원	개별기업별 해외마케팅 개척을위해 시장동향 조사 지원	1기업당 최대 500천원	10개사 내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KCMS : Kotra Consulting & Marketing Solution)	고객별 타겟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에서부터 해외마케팅활동까지 통합솔루션서비스 지원	1기업당 최대 30,000천원	5개사 내외
기술성, 시장성 평가지원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평가 보증 연계 지원	1기업당 최대 6,000천원	5개사 내외

나. 신제품 기획역량 강화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기존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신규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지원	1기업당 최대 15,000천원	3개사 내외
BI 및 CIP 디자인 지원	기업 이미지를 통합하는 CIP 및 자체 생산제품 BI 개발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4개사 내외
해외인증 및 특허지원	해외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획득 비용 및 특허·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6,000천원	5개사 내외
시제품 제작지원	수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의 시제품제작 지원	1기업당 최대 10,000천원	10개사 내외

다. 국내외 마케팅 활동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업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해외 마케팅 개발이 필요한 기업의 바이어 발굴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10개사 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가하는 마케팅 활동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10개사 내외
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지원	시장 개척 및 전시박람회 참가 후 사후 수출상담 목적으로 기업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5개사 내외
Korea AutoParts Plaza 참가 지원	주요 글로벌 OEM기업과의 전시상담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5개사 내외
Global Transportech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확대를 위해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1기업당 최대 5,000천원	10개사 내외
광주국제 자동차모터 전시회 참가지원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전시회 참여지원	1기업당 최대 3,000천원	20개사 내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희망바이어 초청 지원	1기업당 최대 2,000천원	20개사 내외
국내외 홍보물 디자인지원	국내외 마케팅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디자인·제작	1기업당 최대 2,000천원	10개사 내외

* 상기 내용은 사업계획이므로 사업비 지원규모 및 세부사업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09. 5. 13(수) 15 : 00
- 장 소 :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4회의실
- 참석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체 및 위 지원내용과 관련된 기업체 관계자 등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부 김현중 팀장 (062-602-7057, khjsun@gjtp.or.kr)